

10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성화에 집중하여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성경말씀: 빌3:12-16

교회와 성도 문제가 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안에도 분열이 있었다. 선한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4:2).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도 있었다(3:2). 유대교의 외적 치장을 중시하는 사람들, 바울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신 기록, 예수님을 본받아라(2:5), 나를 본받아라(3:17)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전기, 과거(4-11), 현재(12-16), 미래(17-21)

그의 과거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 준다.

버릴 것을 버렸다. 쓸데없는 자랑거리(5-6).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9).

그분의 죽으심, 고난에 참여함, 그 뒤에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부활에 도달한다(10-11). 그는 회계장부에 하나하나 과거를 기록하는 회계사처럼 과거 정리, 우리는 이런 사람이가?

구원받은 뒤 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든다: 농부, 건물, 군사, 운동선수 등

오늘 12-16절은 그의 현재 모습을 그린다. 최종 결승점을 향해 밀치며 나가는 운동선수(14)

14절 그는 쫓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간다. 어떤 운동인지 모른다. 100미터 달리기, 벤허의 마차 경기

여하튼 그는 전력을 다해 결승선을 향해 밀치고 나가는 운동선수를 그리고 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현 세상에서의 삶이다.

살펴볼 12-16절은 구원 이야기가 아님. 행위 구원이 된다. 구원받는 자가 목표를 향해 분투하는 일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전력 질주, < >

성화 중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12).

이미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10). 그럼에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성화 중에 있는 성도의 특징: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면서도 내삶을 보면 좌절이 생긴다(롬7:21-25).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엡4:13)

나보다 못한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만족하면 안 된다.

바울의 경우 다른 성도와 비교하면 아마 만족했을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 오판을 하지 말라. 사데 교회(계3:1). 라오디게아 교회(3:17)

우리 삶에서 우리가 취할 완전한 목표(12)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붙잡는 것

주님께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그를 붙잡으심, 어떤 목적(행26:16-18, 20-22)

바울의 전 생애는 그것을 붙잡는 것, 약 30년 동안 수많은 곳을 다니며 그 일을 행함

어떤 것도 그를 막지 못한다(행20:23-24). 우리에게 이 목표가 있는가?

이 목표가 삶에 있어야 성공한다. 성화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꼭 목사, 선교사가 될 필요 없다. 나를 내신 목표, 그 목표를 붙잡아야 한다.

바울의 자세(13): 선택가 집중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려고 애를 쓴다. 부분적으로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러려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 한 가지 일: 과거의 것들은 잊고 앞에 있는 것들로 나아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 주님: 마르다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눅10:42).

여러분은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가?

실제 성공하는 다수는 한 가지에 집중한다. 공부도 집중해야 한다.

성도의 삶도 성화 하나에 집중한다. 교회 사역도 가능하면 하나에 집중한다.

그가 한 가지에 집중한 결과 신약성경 기록, 수많은 사람 구원

선택과 집중이 성공의 비결이다. 다 할 수는 없다. 게리 켈러 저 <원씽 The One Thing>

그런데 과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

성공하지 못한다. 달리기가 이미 시작되었다.

처음에 무언가 스타트가 불안했다. 여기에 집중하면 그 날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과거를 잊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과거를 잊으라는 것은 과거에 매여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한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람이다. 여기에 매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과거는 우리에게 반성하고 앞으로 나가는 인자가 되어야지 발목을 잡는 인자가 되면 안 된다.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 신세 한탄, 부모, 환경, 사회 계급 탓, 책임 전가, 피해망상

주로 좌파들이 하는 것이다. 부수기만 한다. 왜 그럴까? 세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문제인 정부 하는 것 보라. 적폐 청산, 과거의 좌파 행적을 왜곡하려 한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등, 심지어 동학 난도 혁명으로 만들어 위로금을 주려는 것 같다.

“미래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과거에만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힘든 일이지만 과거를 자기들의 잣대로 '정의 구현'한다는 미명하에 단죄하는 것은 너무 쉽고, 소위 정의명에 걸린 한국인들을 선동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지요. 이념병에 걸린 현 위정자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로서 다음세대가 너무도 걱정됩니다. 정작 해결해야할 현실적인 문제는 산더미처럼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다 보니 떨어지는 지지율을 자신들이 잘하는 선동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해서 만회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정말 속이 타들어 가고..절박한 심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바울에게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우는 사람들이다. 과거 위에 미래는 세우는 사람들, 어두운 과거를 부수어야 한다.

마르틴 루터의 정신, 미국 사람들의 정신, 위대한 미국 건설, 링컨의 정신

이승만의 정신, 박정희 정신, 이병철, 정주영의 정신, 대한민국의 정신

창세기의 요셉을 보라. 형들의 과거, 그를 악하게 대함(창45:7-8)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았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인생을 망친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성도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

뜻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간다(15), 전력 질주, 누가 무어라고 해도 한다.

놀 것 다 놓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전력 질주 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한다(빌2:12-13).

인정받지 못해도 좋다. 바른 일을 한다. 진리 편에 선다. 자연스럽게 일이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힘을 쓴다(딤후4:7-8)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이루려고(14): 땅의 부르심이 아니다!

이런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그것을 아는가?

거기에는 상이 있다(14). 이 상은 구원이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보상이다.

경기장에는 오직 시민만 들어온다. 그리고 상을 얻는 자도 있고 얻지 못하는 자도 있다. 다 시민

그리고 그 상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규칙을 지켜야 한다(15-16).

열심히 경기를 하되 규칙에 따라 해야 한다. 우리의 성화에도 영적인 규칙이 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어도 후에 규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반납해야 한다(딤후2:5).

이 규칙은 자신이나 관람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이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롬14:10-12). 롬15:19-20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 롯, 삼손, 사울,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16).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한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있다. 이미 다 동의하고 여기까지 왔다. 새로 오는 분들 여기에 따라야 한다.

결론

구원받은 자들, 과거를 잊고 한 목표를 향해 질주해야 한다. 하늘의 높은 부르심의 소망, 규칙대로

게리 켈러 저 <원씽 The One Thing>,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개발 회사의 대표, 총 13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단순한 진리는 바로 '원씽'(The One Thing),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파고들라는 것이다. 탁월한 성과는 초점 Focus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 많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기는 어렵다. 그러니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일을 여러 가지로 넓게 펼치다 보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일만 많아지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더하기'가 아닌 '빼기'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책 <원씽 The One Thing>은 복잡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단순함의 힘을 강조한다. 그리고 2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결국 2마리 다 잡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단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책의 저자 게리 켈러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자신이 큰 성공을 거뒀을 때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었다는 사실이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자신의 집중력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어떤 일에 파고든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서 집중해야 한다. 한 가지 일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경우에도 통하기 마련이다.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한다. 그들은 꼭 해야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

복잡한 일이 얽혀있을 경우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내린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들은 과감히 버린다. 자신이 선택한 일을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일에 매진한다.

그들은 늘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집중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일은 미뤄두고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둔다. 당연히 일의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중요한 일을 추려낸다는 마음가짐으로 단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세계적인 철강회사를 만든 앤드루 카네기는 역사상 2번째로 부유했던 사람이다.

그는 '사업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성공의 기본 조건이자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와 생각과 돈을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일을 시작했다면, 그 분야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그 분야에 대해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분야에 돈과 노력을 투입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절대로 시간이 부족한 일이 없다.

그날 정해둔 단 하나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 덜 중요한 일에 나머지 시간을 쓰면 된다.

남다른 성과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수의 행동에서 나온다. 실천하는 몇 가지 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먼저 하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핵심적인 일에서 생긴다. 결국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 한 가지'를 찾고, 그것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기 바란다.

살다보면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느헤미야 당시 성벽 건축, 산발랏 등 반대자들의 방해

만나자, 만나자, 만나자, 느헤미야의 말(느6:3), 나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 끊고 집중한다.